2023년 2월 5일(가해)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녹) 연중 제 5 주일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 안드레아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어린이 전례 : 주일 오후 3시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얀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교황님 기도지향 – 2 월]

복음화 지향 : 본당들

본당들이 친교를 중심으로 하여 더욱더 신앙과 형제애 그리고 가장 가난한 이들을 향한 환대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교황님 메시지: 상단 우측이미지 클릭)

오늘 전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알려 주신 이 사명에 따라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안에 살면서도 세상의 논리에 현혹되지 않고 복음 정신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간절하게 청합시다.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8,7-10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리라.>

화답송 시편 112(111),4-5.6-7.8ㄱ과 9 (◎ 4ㄱ)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2,1-5
<나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선포하였습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8,12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3-16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영성체송 시편 107(106),8-9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영성체 후 묵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에 걸맞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며 정당화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사랑의 길, 용서의 길을 증언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용기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실천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낼 때 비로소 참행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3 년 2 월 5 일(가해)

연중 제 5 주일

♣ 오늘의 복음 묵상 – 박형순 바오로 신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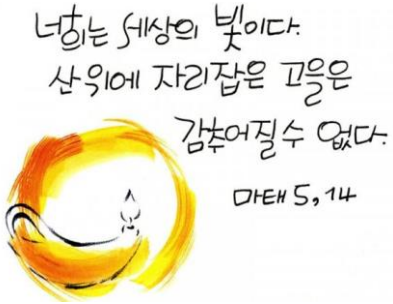
누가 세상의 빛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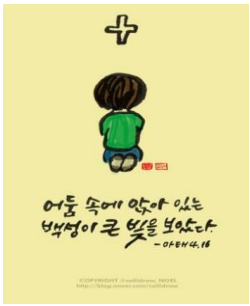
성경 전체에서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은 단 네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복음인 마태오 복음에 등장하고(마태 5,14), 나머지 세 번은 모두 요한 복음에서 등장합니다(요한 8,12; 9,5; 11,9). 두 복음서의 차이는 '누가 세상의 빛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한 8,12; 9,5). 반면에 마태오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복음서 모두 틀리거나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빛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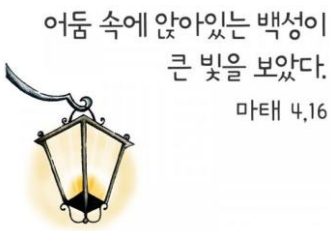
오늘 복음이 전해 준 세상의 빛으로 지칭된 "너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마태오 복음은 앞서 빛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마태 4,16). 여기서 빛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바로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체험한 사람들로,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빛으로 체험한 사람들, 그들이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게 물든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때로 빛보다 어둠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어둠이 눈에 익어 빛이 필요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하였기에 이미 빛을 보았습니다. 나를 둘러싼 어둠에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둠이 있기에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미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그 빛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어둠에 있는 우리가 내 마음 깊은 곳의 어둠을 발견할 때, 더 밝고 환하게 빛이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가 그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연중 제 5 주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성부 하느님과 성령'
폼페오 바토니 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16).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2023 년 2 월 5 일(가해)

연중 제 5 주일

재의 수요일 미사(2 월 22 일 수요일, 오후 7 시)

[성지가지 수거] 성전 입구에 마련된 수거함에 2 월 19 일(주일)까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수요일의 유래와 영성적 의미] https://honephil.tistory.com/354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미사 30 분 전)

봉헌 순번 : (2 월 26 일) 요한반 → (3 월 5 일) 루카반 → (12 일) 마르코반 → (19 일) 마태오반 → (26 일) 사목회

2023 년 부활 판공성사 안내

성사 순번(권고) : (2 월 26 일) 루카반 → (3 월 5 일) 마르코반 → (12 일) 마태오반 → (19 일) 요한반 → (26 일) 전신자

※ 판공성사표 분배 (2월 19일부터) : 소속 소공동체 반장님들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 문의 : 주정자 루치아

※예비신자란? https://www.kcccanberra.org/catholic-doctrine

예비신자교리

시드니 성당 말씀나눔(그룹성경공부) 안내

[과목] 마르코복음, 요한복음

[공부기간] 2023 년 3 월 ~ 11 월

[신청기간] 2 월 26 일(주일)까지

[교재비] 30 불 (※등록비 10 불은 공동체 지원)

[참여공동체] 캔버라, 시드니, 버큼힐

[문의 및 접수] 주정자 루치아 (0410 106 633)

2023 년 제 31 차 세계 병자의 날 (2 월 11 일) 프란치스코 교황님 담화문

-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연민은 치유의 시노달리타스 실천 -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치유의 공동합의적 실천인 연민"**이라는 주제로 제 31 차 세계 병자의 날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코로나 19 는 기존 복지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며 단순히 질병에 걸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 앞서는 고독과 소외에 처한 모든 이를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질병은 우리의 인간적 상황 가운데 하나이지만 고립과 소외 가운데서 질병을 경험할 때, 질병에 돌봄과 동정이 함께 하지 않을 때, 질병은 비인간적인 모습이 됨*"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누군가 아픔을 느끼고 누군가 피로 또는 그 길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멈추어 서야 하는 것은 유별난 일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순간들에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그 여정을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마다 자기 이익만 좇고 다른 이들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그저 같은 길 위에 있는 개인인지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교회가 시노달리타스의 길(공동합의적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제 31 차 세계 병자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특히 취약함과 질병의 체험을 통하여 친밀함과 연민과 자애로, 곧 하느님의 방식으로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성찰하도록 교황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황님께서는 **멈춰서서, 다가가고, 돌보며, 위로할 줄 아는 연민**이 필요함을 호소하시면서 세계 병자의 날이 단순히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라고 촉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느님 백성, 보건 당국 및 시민사회가 함께 나아가는 새로운 방식에 관심을 촉구하려는 목적도 있음을 상기시키셨습니다.

[담화문 전문] https://cbck.or.kr/Notice/20230038?gb=K1200

[관련뉴스] https://www.vaticannews.va/ko/pope/news/2023-01/papa-francesco-professionisti-sanitari-cura-malati.html

[세계 병자의 날-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관련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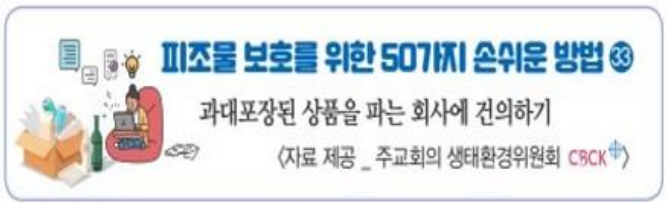
https://www.mariasarang.net/saint_bbs/bbs_view.asp?index=bbs_saint&page=142&no=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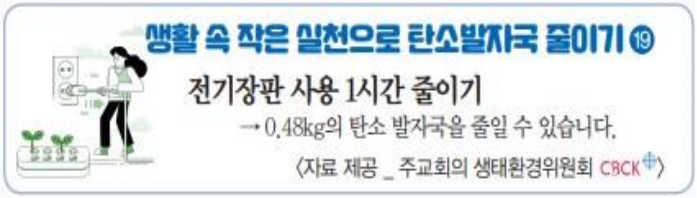
https://maria.catholic.or.kr/mi_pr/missa/bbs_view.asp?id=168038&ref=602&menu=4801

2023 년 2 월 5 일(가해)

연중 제 5 주일

| 연중 제 5 주일 주간실천 |





CPBC 뉴스

"친절"을 강조하는 이유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유덕현 아빠스가 친절을 강조한 이유를 전해드립니다.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24 강]
그래서, 선택하셨습니까?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신명기 1 부 | 1-11 장

가톨릭 책방

시노달리타스는 대통합의...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시노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보시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공소예절 참례자수

1 월 22 일	성인 40 아이 14	1 월 29 일	성인 28 아이 11

☐ 우리들의 정성 (1 월 28 일(토)~2 월 3 일(금))

구민식	김요한	남궁영근	안영규	양홍석	이명진	이지영	장호훈
주정자	최병건	허준					
교무금 $495 (11 가정), 해외원조주일 모금액 $300 (사랑의 선교회 전달 예정)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062786 / Account Number: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2 월 5 일, 연중 제 5 주일) 이상명 다니엘, 이명진 이사악
(2 월 12 일, 연중 제 6 주일)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5 일) 요한반 → (12 일) 루카반 → (19 일) 마르코반 → (26 일) 마태오반

○ **미사 후 다과·친교(매 2 주 1 회, 매월 첫째주 식사)**: (5 일, 루카반) 식사 → (19 일, 루카반) 간식

♡ 양명식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환영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신부님께 내리시길 기도드립니다. ♡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한 기도 병자를

(이미지 클릭)

♡ 매일 만나는 기쁜소식 (이미지 클릭)
하느님의 선물, 복음의 씨앗인 거룩한 말씀을 통해 건강하고 은총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